

‘아쉽지만 올해도’... 광양매화 등 전남 대표축제 줄줄이 취소

지난해 축제 22개 시·군 115개 중 109개(94.8%) 취소
올해도 코로나19 지역감염 차단 위해 취소 결정 잇따라
축제 무산에 농어민 소득감소 피해 막대...비대면 준비도

코로나19 장기화로 지난해 전남지역 축제 95% 가량이 취소된 가운데 올해도 지역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상당수 축제가 빛을 보지 못할 전망이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2월부터 코로나19가 지역 곳곳으로 파고들면서 전남지역 22개 시·군에서 개최할 예정이었던 축제 115개 중 109개(94.8%)가 취소됐다.

올해도 전남지역에 116개의 축제가 예정돼 있으나 전국적인 봄꽃축제부터 줄줄이 취소되고 있다.

지난해 꽃을 보려고 전국에서 인파가 몰려들자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눈물을 머금고 꽃

대를 꺾어야 했던 악몽이 되풀이되고 있다.

3월 광양 매화축제와 구례 산수유축제, 4월 장성 빈센트 봄축제, 5월 함평나비축제·장성 황룡강 홍길동무 꽃길축제 등이 취소됐다.

광양시는 지난해 축제 취소에도 불구하고 인파가 몰려든 점을 감안해 올해는 매화마을 주차장을 전면 폐쇄하고 SNS와 플래카드로 방문 자제를 홍보하고 있다.

지역축제가 농어민 소득과 관련돼 있어 전남 매화축제와 영암 왕인문화축제는 궁여지책으로 비대면 온라인 축제를 준비하고 있다.

지역 농특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 플랫폼이었던 지역 축제가 대부분 취소되면서 농



함평나비축제



광양매화축제

어민 소득 감소 피해가 막대하기 때문이다.
대표적 축제인 함평 나비축제의 경우 2019년 입장객 31만666명으로 입장료 수입 9억5500만원, 농특산물 매출 4억255만원, 각종 판매장 매출과 부스 임대료 10억1100만원의 수입을 기록했으나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취

소됐다.
장성군 황룡강노란꽃잔치는 2019년까지 3년 연속 100만명 이상이 방문하면서 경제적 파급효과도 265억원에 달했지만 지난해 제 역할을 하지 못했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만의 풍경과 맛, 멋을

내세우며 지역의 주요 소득원이던 축제가 전면 취소되면서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며 “주민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올해도 코로나19 여파로 상당수 축제가 취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정환기자

광주광역시 인구 2.1명당 자동차 1대 보유

지난해 말 기준 등록대수 69만1740대
친환경차 31%↑...1인 가구도 증가↑

광주시민 2명당 1대 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광주지역 자동차 등록대수는 전년에 비해 2.29%(1만5459대) 증가한 69만1740대로, 2.1명 당 자동차 1대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VIMS) 통계에 따른 것으로 ▲승용차 57만6366대(82.32%) ▲승합차 1만9940대(2.88%) ▲화물차 9만2444대(13.36%) ▲특수차 2990대(0.43%) 등이 다.

최근 10년간 광주시 전체 차량 등록대수는 2011년 53만5812대에

서 15만 대 증가한 69만1740대로, 29%의 증가율을 보였다. 차종별로는 승용차 37%, 화물차 9%, 특수차 93% 증가했고, 승합차는 26%가 감소했다. 승합차 감소 원인은 1인 가구 증가로 파악된다.

친환경차 등록대수는 2019년 1만6313대에서 2020년 말 2만1370대로 31% 증가했다.

시 관계자는 “올해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 금액이 늘어날 경우 친환경차 등록 비중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동취재본부



광주 빛그린산단, 미래형 車산업 메카 ‘우뚝’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인증센터·자율주행·완성차 ‘한 곳에서’
부품클러스터 내년까지 구축...전국 유일 인증센터 7월께 완공

광주 빛그린산업단지가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메카로 빠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 무인자율주행 비대면서비스 실용화, 완성차공장 등 친환경차와 무인자율주행까지를 아우르며 미래 자동차산업을 이끌 선도도시로 우뚝 설 것이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친환경차 부품클러스터는 지역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와 연관된 전장부품 기술 등을 융합발전시키는 자동차 부품산업 구조조도를 목표로 2016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3030억 원을 투입해 빛그린산단에 구축 중이다.

빛그린산단 연구용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연면적 1만906㎡ 규모의 179개 기술개발 장비를 갖춘 선도기술지원센터와 창업보육과 해외 마케팅, 인력 양성의 핵심기능을 수행할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적 4889㎡ 규모의 글로벌비즈니스센터가 건립되고 있다.

친환경차 선도도시 조성을 위해 빛그린산단에 구축중인 전국 유일 친환경차 부품인증센터도 오는 7월 준공된다. 급증하는 인증 수요와 사후 관리에 적극 대응하고, 안전인증과 평가를 담당하게 된다. 지상 2층 규모로 지난해 8월 착공, 총동시현동, 총격시험동, 배터리 시험동 등 3개 동을 구축 중에 있다. 완공되면 곧바로 26종에 이르는 각종 인증·평가 장비가 2022년까지 구축된다.

노사 상생형 광주형 일자리를 실현시킬 광주글로벌모터스(GGM) 자동차공장도 현재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9월부터는 본격적인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세계 최초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사회통합형 노사상생 일자리로 23년 만에 처음으로 국내 자동차공장 건설이라는 기념비적 의미도 담고 있다.

오는 4월 준공과 함께 시운전에 들어가 오는 9월 양산체제에 들어간다. 당장은 내연SUV 경차를 생산하지만 자동차시장의 환경변화를 예

의주시하며 친환경 자율주행차 생산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빛그린산단에는 여기에 더해 무인자율주행 기술의 언택트 서비스 실용화 기술개발 및 실증사업도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으로 올해부터 2024년까지 410억원을 투입해 헬스케어, 무인점포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무인자율주행 셔틀활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실증하는 내용이다.

시는 세계 최초 실증을 통한 자율주행 언택트 기술을 선점하고 조기 실용화로 관련 산업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공모사업에 선정되도록 다각적인 연구와 검토를 진행 중에 있다. 이 사업이 최종 선정돼 추진되면 자율주행 차량 플랫폼 기술 확보를 통해 경제사회적 편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손경중 시 인공지능산업국장은 “친환경과 자율주행 중심의 미래형 자동차산업은 인공지능 산업과 함께 광주가 4차 산업혁명의 주력 산업으로 집중 육성중인 분야”라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미래형 자동차산업의 거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동취재본부

청정에너지의 오늘, 한수원이 펼치고 있습니다

더 편리하고 가치 있는 세상을 위해
청정에너지가 있는 곳 그 어디라도
한수원이 찾아가겠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에너지 스카우터
한수원

